

병자호란 시기 조선인 포로 문제에 대한 재론

한명기

머리말

1636년 12월에 발생하여 1637년 2월에 종료된 병자호란은 임진왜란과 더불어 조선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미친 대사건이었다. 그런데 병자호란이 남긴 정신적 충격은 임진왜란의 그것보다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2개월 남짓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의 전란으로 끝났지만 ‘국체(國體)의 상징’인 국왕이 ‘오랑캐 추장’인 청 태종(太宗)에게 치욕적인 항복의 예를 행하고, ‘종주국’으로 떠받들었던 명과의 관계를 청의 강요에 의해 단절해야 했으며,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가야만 했던 상황은 이후 조선 조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인조는 청 태종에게 삼례구고두례(三跪九叩頭禮)를 올리는 치욕을 겪었지만, 이후 국왕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남한산성에 들어가 농성하고 있는 동안, 기전(畿甸)과 한강 이북 지역의 백성들은 청군의 위협 앞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엄청난 수의 백성들이 청군에게 피살되거나 사로잡혔고, 사로잡힌 피로인(被擄人)들은 심양(瀋陽) 등지로 압송되었다. 전란이 끝난 직후부터 피로인들이 줄지어 도망해 오고, 청이 그들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조청 관계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 때문에 조선 조정은 도망해 온 주회인(走回人)들을 돌려보내는 문제, 나아가 청에 계속 억류되어 있던 피로인들을 속환(贖還)하는 문제를 놓고 부심해야만 했다.

병자호란 당시 청 내지로 압송되었던 피로인의 숫자는 최대 50만 정도까지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수의 인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혈육끼리의 이산 고통, 도망자의 처리를 둘러싼 조청 갈등, 속환가(贖還價)를 둘러싼 마찰, 속환되어 돌아온 환향녀(還鄉女)와 본래 남편들의 이혼 문제 등 복합적인 정치적·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¹⁾

기존 연구를 통해 ‘피로인 문제’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지만, 아직 구명해야 할 몇몇 문제들이 남아 있다. 먼저 대규모 피로인이 발생했던 배경이 명확하게 구명되지 않았다. 수십만에 이르는 피로인들이 발생한 근본원인이 청의 침략이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청군이 호란 시기 내내 ‘포로 사냥’에 집착했던 구체적 배경에 대한 해명은 아직 미흡하다. 엄청난 수의 자국 백성이 청군의 포로가 되는 과정에서 조선 조정이나 지배층이 저야할 책임 문제에 대한 구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 森岡康, 「贖還被擄婦人の離異問題について」, 『朝鮮學報』 26, 1963; 박용옥, 「丙子亂被擄人贖還考」, 『史叢』 9, 1964; 森岡康, 「丁卯亂後における贖還問題」, 『朝鮮學報』 32, 1964; 森岡康, 「許博の疏文と贖還批判 上·下」, 『朝鮮學報』 37·38, 39·40, 1966; 金鍾圓, 「初期 朝清關係에 대한 一考察—丙子胡亂時의 被擄人 문제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71, 1976; 森岡康, 「朝鮮捕虜の清國の價格について」, 『東洋學報』 66, 1985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피로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들이 포로로 잡히고, 집단적으로 수용되고, 청으로 끌려가고, 청에 도착한 이후 각 단계마다 마주해야 했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이 밖에 조선으로 탈출해 왔거나 속환되어 왔던 피로인들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명 문제도 과제로 남아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병자호란 무렵 청군에 의해 자행된 포로 납치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 같은 피해를 야기했던 원인과 피로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실상, 나아가 이후 진행되었던 ‘피로인 문제’ 해결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을 통해 병자호란 무렵의 포로 문제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다시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전쟁 피해의 양상과 ‘피로인 문제’의 심각성

병자호란(1636~1637)은 비록 2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벌어진 전쟁이었지만, 그것이 남긴 피해와 후유증은 대단히 컸다. 인조와 조정이 남한산성에 들어가 농성하는 동안 청군에게 점령되었던 서울과 그 주변을 비롯한 한강 이북 지역에서는 처참한 살육과 ‘포로 사냥’이 자행되었다. 서울로 환도한 직후 호조가 올린 보고에 따르면 ‘여염은 모두 불타고 시체가 즐비한 가운데 남아 있는 사람은 다만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과 70이 넘는 노인들 뿐’이라고 했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굶주리고 얼어 죽게 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노인들에게 진흙 대책을 마련해주고 고아가 된 아이들은 임진왜란 당시의 예에 따라 양육하는 사람이 노비로 삼도록 허락하라고 건의했다.²⁾ 도성 안팎의 길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수많은 백골을 수습하여 묻어주는 문제, 전쟁 직후 도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피난민들을 구호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다.³⁾

서울 주변 지역의 피해도 혹심했다. 청군은 경기도 광주와 판교 등지에서 삼남으로 이어지는 길을 차단하여 조선의 지방군이 남한산성을 구원하기 위해 올라오는 것을 막았다. 청군은 1637년 1월 충청도 일원까지 남하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 조선군의 저항이 변변치 못했던 상황에서 청군의 접략 범위는 한강 이남 지역까지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청군이 철수한 직후인 1637년 2월, 경상도 용궁(龍宮)을 출발하여 여강(驪江)과 평구(平邱)를 거쳐 서울로 들어왔던 김종일(金宗一, 1597~1675)은 상경 도중에 목격한 처참한 광경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지나던 길에서 오랑캐가 진(陣)을 철거한 것이 겨우 며칠이다. 여염은 모두 비었고, 인연(人煙)이 없어 적막하다. 널브러진 시신들이 뒤엉켜 쌓여 눈에 밝히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 길을 갈 수 없으면 밤에는 빈집에 들어가고, 낮에는 광야에서 밥을 먹는다. 마주 보며 소리를 삼키고 눈물을 떨군다. 험한 길에서 어렵게 걸음을 옮기지만 도성 사람들 또한 돌아온 자가 없다. 방리(坊里)가 한결같이 빈 것이 지나온 곳과 똑같다.⁴⁾

2)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2월 辛未, 癸酉.

3)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2월 己卯.

4) 金宗一, 『魯庵集』 권1, 「魯庵先生年譜」. “所經道路 虜之撤陣 纔數日 閭閻皆空 寂無人煙 橫屍交積 觸目傷心 路不可行 夜入空舍 晝食曠野 相與吞聲隕淚 間關進步 城中之人 亦無還入者 坊里一空 一如所經處.”

김종일의 진술에 따르면,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 도성과 도성 주변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처참함과 적막함 그 자체였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강도록(江都錄)』의 저자는 “피 냄새가 진동하는 폐허 속에서 한두 살, 혹은 세 살 쯤 되는 아이들이 포개져 있는 시신들 사이로 기어 다니면서 울어대는” 처참한 장면을 묘사하기도 했다.⁵⁾

병자호란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병자호란이 남긴 후유증 가운데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바로 엄청난 수의 피로인이 발생했다는 것, 즉 ‘포로 문제’였다.

병자호란 당시 청군에게 사로잡혀 심양으로 압송된 피로인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1637년 인조의 항복으로 ‘성하지맹(城下之盟)’이 이루어진 직후, 최명길(崔鳴吉)은 ‘병자호란의 전말’을 명에 알리기 위해 가도(假島)에 보낸 자문(咨文)에서 조선인 피로인의 수를 50만이라고 말했다.⁶⁾ 같은 해 9월, 예조좌랑 허박(許博)은 청군에 끌려가 심양에 억류되어 있는 피로인의 숫자를 수만이라고 했다. 『병자록(丙子錄)』의 저자 나만갑(羅萬甲)은 청군이 철수하면서 수백 명의 포로를 얻을 지어 앞세우고 한두 명의 감시인을 붙여 끌고 가는 것이 하루 종일 지속되었다는 것, 훗날 심양의 인구 60만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인이라는 사실 등을 서술하여⁷⁾ 최명길이 제시한 수치 of 가능성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좀 더 정확히 따져봐야겠지만, 호란 당시 청으로 끌려간 조선인 포로는 최소 수만에서 오십만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숫자였던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수의 인구가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은 당시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은 단순히 인구 감소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일찍이 청 태종은 철수할 때 ‘피로인 가운데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탈출하는 자는 불문에 부치지만, 일단 청 영토로 들어갔다가 도주하는 자는 조선이 다시 잡아 보내야 한다’는 약조를 인조에게 제시하여 다짐을 받아냈다. 그리고 탈출했다가 도로 잡혀온 피로인들은 청군에게 끌려가 발뒤꿈치를 잘리는 고통을 겪었다.⁸⁾ 이 같은 상황에서 부모형제를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천신만고 끝에 사지(死地)에서 탈출해 온 피로인들을 도로 붙잡아 보낸다는 것, 그것은 한 마디로 ‘차마 할 수 없는 짓[不忍之事]’이었다. 나아가 전쟁 직후의 흥흥한 민심을 더욱 자극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했다.

‘도망자 처리’를 비롯한 ‘피로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여부는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자 병자호란 이후 인조 정권이 유지되는 데 일종의 ‘아킬레스 건’이었다. 인조 정권은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칭신(稱臣)하는 치욕을 겪음으로써 이미 권위가 심각하게 실추되었다.⁹⁾ 그 같은 상황에서 ‘피로인 문제’ 문제마저 안이하게 다룰 경우, 전란의 고통에 신음하던 당시 사서(士庶)들의 입장에서는 인조 정권 존립의 ‘정당성’에 대해서까지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항복 직후

5) 『江都錄』(『稗林』, 1969, 탐구당 영인본 8책 所收).

6) 최명길, 『遲川集』 권17, 「移陳都督咨」.

7) 羅萬甲, 『丙子錄』, 「急報以後日錄」 2월 8일.

8) 『瀋陽狀啓』 丁丑 9월 6일.

9) 출성 직전인 1637년 1월 23일, 설서(說書) 유계(兪槩)는 ‘광해군이 오랑캐와 상통(相通)한 것을 치죄한 것이 인조정권 출발의 근본’이라고 전제한 바 있다(『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1월 癸亥). 따라서 병자호란을 통해 ‘오랑캐’에게 칭신한 인조정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피로인 문제’와 관련하여 백성들의 동향을 주시하던 조정은 1637년 2월 19일 다음과 같은 인조의 발언을 담은 교유문(敎諭文)을 반포했다.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은 사람마다 원하는 바인데 나는 지금 헤진 갓옷을 입고 거친 밥을 먹는 것이 일반 천민과 다름이 없고,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려 하는 마음은 천성에서 자연히 우러나오는 것인데 나는 지금 두 아들과 두 며느리를 모두 이미 북쪽으로 떠나 보냈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내가 매우 마음 아파하는 것은 여기에 있지 않다. 백성을 기르는 자리에 있으면서 도를 잃은 나머지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화를 끼쳤다. 그리하여 난을 구하러 달려온 군사들로 하여금 전장의 원혼(冤魂)이 되게 했고, 죄 없는 백성들을 모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여 아버지는 자식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아버는 지어미를 보호하지 못하게 하여 어디를 보든지 간에 가슴을 치고 하늘에 호소하게 했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 책임을 장차 누구에게 전가할 것인가. 이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머금고 오장이 에이는 듯하여 뜬눈으로 밤을 새운다.¹⁰⁾

인조는 위에서 “두 아들과 두 며느리를 모두 이미 북쪽으로 떠나보냈다”고 함으로써 자신 또한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혈육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나아가 자신이 잘못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담고 있는 수사(修辭)인지 알 수 없지만, 일찍이 역대 어느 국왕도 발표한 적이 없을 정도로 ‘몸을 낮춘’ 대국민 사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조는 1641년(인조 19) 도망쳐 온 피로인들을 돌려보내라는 청의 강요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졌을 때도 다시 유시문을 반포했다. 이번에도 인조는 “이번 일을 당한 백성들이 아무리나를 꾸짖고 원망한다 해도 이것은 나의 죄이니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몸을 낮추었다.¹¹⁾ ‘자신의 죄’라고 운운하면서까지 사태를 수습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에서 ‘피로인 문제’가 가지는 심각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엿볼 수 있다.

2. 대규모 피로인 발생의 원인과 주회인 문제

그렇다면 병자호란 당시 이렇게 많은 피로인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와 관련해서는 후금의 포로에 대한 집착과 조선의 문제점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청의 포로에 대한 집착

병자호란 당시 엄청난 수의 피로인이 생겨나게 된 원인은 물론 청의 침략 때문이다. 그리고 주목되는 것은 청군 지휘부가 보여주었던 포로에 대한 집착과 포로 획득을 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그들의 인식이다. 청은 일찍이 후금(後金) 시절부터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한인(漢人) 부로(俘虜)들을 획득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¹²⁾ 그런 추세는 조선에 대해

10)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2월 己丑.

11) 『仁祖實錄』 권42, 인조 19년 1월 戊寅.

12) 金斗鉉, 「遼東支配期 누르하치의 對漢人政策」, 『東洋史學研究』 25, 1987; 閻崇年, 『清

서도 마찬가지였다. 후금 시절이었던 1621년(광해군 13), 그들은 조선 조정에 대해 요동 지역의 한족(漢族)들 가운데 전란을 피해 조선으로 도주한 자들을 송환하라고 요구해 왔다.¹³⁾ 또 청의 홍타이지(皇泰極)가 정묘호란을 일으키기로 결정했던 직후, 한인(漢人) 생원 악기란(岳起鸞)이라는 자가 명과 화의(和議)할 의향이 있으면 당시 포로로 잡은 한인과 신사(紳士)들을 돌려보내라고 촉구했던 적이 있다. 이에 대해 홍타이지는 “포로로 잡은 사민(士民)은 하늘이 준 것이니 돌려보내는 경우가 없다”고 반박했다.¹⁴⁾ 여기서 보이듯이 당시 후금은 전쟁에서 획득한 포로를 ‘하늘이 준 것[天之所與]’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후금은 바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포로 획득에 열중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정묘호란 당시에도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조선인 포로들을 끌고 갔다.¹⁵⁾ 기습적인 침략을 맞아 조선군은 패배를 거듭했고, 인조와 조정이 강화도로 피난한 가운데 후금군은 최종적으로 황해도 서흥(瑞興)까지 밀고 내려왔다. 따라서 평안도와 황해도 백성들 대부분은 후금군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¹⁶⁾ 정묘호란을 전후한 무렵 평안도 지역에서 정봉수(鄭鳳壽)를 비롯한 인물들이 의병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던 것은, 정부군의 도움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채 후금군의 위협에 맞서야 했던 상황에서 나온 자구책이자 교육지책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정묘호란 당시 후금군은 엄중한 감시 아래 포로들을 후금으로 연행했다. 그 과정에서 포로들이 탈출을 시도하면서 비극이 속출했다. 1627년 4월의 기록을 보면, 배에 실려 압록강을 건너던 조선 포로들이 물로 뛰어들어 익사자가 속출했고, 후금군은 그것을 막기 위해 배 위에 울타리를 설치했는가 하면 포로들을 결박해서 데려가기도 했다.¹⁷⁾ 홍타이지는 정묘호란 당시 공을 세운 장졸들에게 인구와 우마를 상으로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¹⁸⁾ 이렇게 시상에 필요한 인구에 충당하기 위해서도 포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금은 포로를 중시하여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분전(奮戰)토록 하는 수단으로 ‘포로 사냥’을 활용했고, 그렇게 얻어진 포로들을 ‘혈전(血戰)을 통해 획득한 재물’로 인식하고 있었다.¹⁹⁾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포로 획득에 골몰할 수밖에 없었다.

청의 포로에 대한 집착, 그로 인한 ‘포로 사냥’은 병자호란을 맞아 훨씬 더 두드러진 모습을 보인다. 홍타이지는 조선 침략에 나서면서 내린 포고를 통해 조선 주민들은 청군을 피해 도주하지 말고 현 거주지에 그대로 안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주하지 않는 주민들은 연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청군은 지나는 연도 지역의 조선 주민들 가운데 도주하지 않고 항복한 자들은 치발(薙髮)을 하게 했으나 연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군을 피해 도주한 자들은 뒤쫓아 살해하거나, 포로로 잡았을 경우 연행했다.²⁰⁾ 도르곤(多爾袞)이 1637

朝通史』, 北京: 紫禁城出版社, 2003.

13) 『清太祖實錄』 권7, 天命 6년 3월 癸亥.

14) 『清太宗實錄』 권2, 天聰 1년 3월 己巳. “上曰 (….) 至俘獲士民 天之所與 豈可復還敵國耶.”

15) 1627년 4월, 후금은 선천·곽산·철산 등 정묘호란 당시의 전장이 아닌 곳에서 사로잡았던 조선인 포로 32,100여 명을 송환한 바 있다. 평안도 3개 지역의 수치만 이 정도라고 할 때, 실제 피로인의 총수는 엄청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森岡康, 「丁卯亂後における贖還問題」, 『朝鮮學報』 32, 1964, 79쪽.

16) 정묘호란의 전황에 대해서는 柳在城, 『병자호란사』, 198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참조.

17) 申達道, 『晚悟先生文集』 권5, 「假島奉使時間見啓」 丁卯 4월 18일.

18) 『清太宗實錄』 권3, 天聰 1년 4월 乙卯.

19) 『清太宗實錄』 권34, 崇德 2년 2월 辛巳.

년 강화도를 함락시켰을 때도 강화성 안에 머물다가 체포된 사람들은 회군하면서 방송했지만 청군을 피해 성 밖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된 사람들은 심양으로 연행했다.²¹⁾

병자호란 당시 청군 가운데는 만주인뿐만 아니라 한인과 몽골 출신 병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같은 ‘다국적’ 구성이 조선에 대한 겁략과 포로 사냥을 더 부추긴 측면이 있다. 만주 출신 병사들은 군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는데 비해, 한인과 몽골 출신 병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특히 몽골병들의 약탈과 포로 사냥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637년 1월 1일 서울 도성에 불을 지르고 겁략을 자행했던 것도 몽골병이었고, 인조가 항복하여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뒤에 도성에 들어와 겁략을 자행했던 것도 그들이었다. 심지어 청군이 한창 철수 길에 오르고 있었던 2월 7일에도 몽골병들이 서울로 들어가겠다고 공언하여, 조선이 훈련도감의 병력을 동원하여 대비에 나설 정도였다.²²⁾ 그들은 강화도를 점령했을 당시에 지휘관 도르곤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강화성에 불을 지르고 살육과 약탈을 자행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함경도를 경유하여 철수하는 과정에도 곳곳에서 살육과 겁략을 멈추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²³⁾ 홍타이지의 지시에 따라 청군에 편입되어 조선 침략의 보조군으로 투입된 그들은, 철수하여 돌아가도 이렇다 할 생활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재화와 포로를 얻을 수 있는 조선에서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겁략과 포로 사냥에 골몰했던 것 같다.²⁴⁾

홍타이지는 강화가 뚫어진 이후에는 청군 병사들이 조선인들을 사로잡는 행위를 금지하고, 또 그렇게 잡힌 피로인들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한 예로 1637년 2월 2일, 인조가 이미 항복한 터라 남한산성의 수성군(守城軍) 가운데 일부 병사들이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대오를 해산했다가 태반 이상이 청군의 포로로 잡혔다. 뿐만 아니라 청군은 철수하는 도중에도 산곡(山谷)에 숨어 있던 조선인들을 붙잡아 머리를 깎아 잡아가고 있었다. 홍타이지의 명령이 일선 병사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다.²⁵⁾

철수하는 과정에서 한인이나 몽골 출신 병사들이 서북 지역에서 경작하는 조선인들까지 포획하는 것이 문제가 되자, 홍타이지는 조선의 서북 지방관들에게 ‘철수하는 대군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백성들을 원적지로 보내 경작하도록 하라’고 유시하기도 했다. 한인이나 몽골병들이 겉으로는 명령을 따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를 여기는데도 휘하 병력을 단속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고안해낸 교육지책이었다.²⁶⁾ 요컨대 조선은 ‘항복’과 함께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후에도 청군 병사들은 ‘포로 사냥’에 광분했던 것이다.

청군의 포로 획득에 대한 집착은 이후 다른 형태로 계속되었다. 1637년과 1641년, 조선군은 청의 강요에 밀려 청이 명을 공격하는 데 원병으로 징발되었다. 1637년의 경우, 귀환하지 못한 병력이 880인이었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는 주희인의 누명을 쓰고 억류되었다.²⁷⁾

20) 『清太宗實錄』 권32, 崇德 1년 12월 壬午.

21) 羅萬甲, 『丙子錄』, 「記江都事」.

22)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63, 「丙丁表」.

23)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1월 壬戌; 권34 인조 15년 2월 辛未, 癸巳.

24) 나만갑에 따르면 당시 조선에 들어온 몽골병들은 모두 부모와 처자까지 동반했다고 한다(羅萬甲, 『丙子錄』, 「急報以後日錄」 丁丑 2월 2일). 따라서 항산(恒産)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했던 그들이 겁략에 혈안이 되었던 까닭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25) 『瀋陽狀啓』 丁丑 3월 13일.

26) 『清太宗實錄』 권34, 崇德 2년 3월 乙巳.

1641년에도 청군 가운데는 자신들과 사단이 생겨 다투었던 조선 군병들을 “본래 내가 잡은 피로인이었는데 도망친 자”라고 무고하여 억지로 억류하여 노비로 삼으려고 했던 부류들이 있었다.²⁸⁾ 포로에 대한 그들의 집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2) 조선군 지휘부의 과오

병자호란 시기 엄청난 수의 피로인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조선 측에도 있었다. 1636년 조선이 청의 ‘칭제건원(稱帝建元)’을 거부한 뒤, 청의 조선 침공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청에 대한 기미책(羈縻策)을 통해 전쟁을 피하자고 주장했던 최명길은 “적의 기마대가 일단 압록강을 건널 경우 체신(體臣)은 강화도로 들어가고, 도원수는 황주의 정방산성(正方山城)으로 퇴거할 것이니 청천강 이북은 적에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안주성은 형세상 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생령들이 어육(魚肉)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²⁹⁾ 최명길의 예상은 거의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그것은 무조건 항복이라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1627년 정묘호란 당시만 해도 후금은 조선인 포로들을 상당수 송환했다. 조선 또한 개시(開市) 문제 등을 매개로 포로 문제를 교섭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하여 버틸 여력이 있었던 데다, 배후에 있는 명의 위협을 염두에 두어야 했던 후금 또한 조선을 계속 밀어붙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병자호란 무렵에는 달랐다. 인조는 오랫동안 피난처로 정비하고 준비했던 강화도로 들어가지 못했고, 항진 준비가 거의 갖춰지지 않았던 남한산성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이후 구원군이 끊기고 군량마저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인조의 출성과 항복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결국 항복이 기정사실이 되면서 조선의 관심은 오로지 인조의 ‘안전’을 확약 받는 데만 집중되었다.³⁰⁾ 그리고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조선은 포로 문제 등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휘둘리게 되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 최명길과 정운(鄭纘) 등은 청과 결전을 벌이려면 인조가 앞장서고 조정이 압록강 변까지 나아가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래야만 패하더라도 피해 범위를 줄일 수 있고,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화약(和約)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³¹⁾ 하지만 인조는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사시 강화도로 들어가는 것을 고집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이 터지자 인조는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결국 청군의 깊숙한 남하를 초래하고 서울 주변에서 엄청난 수의 피로인들이 발생하도록 만든 근본원인이 되고 말았다.

인조의 강화 입도(入島)가 불가능해지고 엄청난 수의 피로인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가장 무겁게 져야 할 인물은 도원수 김자점(金自點)과 강화도 검찰사(檢察使) 김경징(金慶徵) 등

27) 『仁祖實錄』 권36, 인조 16년 1월 癸酉.

28) 『瀋陽狀啓』 辛巳 7월 24일.

29) 崔鳴吉, 『遲川集』 권12, 「丙子封事」.

30) 인조는 항복하더라도 출성만은 끝까지 회피하려 했다. 청이 흑시라도 자신을 심양으로 끌고 가지나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인조는 출성하지 않으면 항복조차 받아주지 않겠다는 청의 협박에 밀렸고, 강화도 함락이 알려진 직후인 1636년 1월 27일 결국 청진영에 국서를 보내 “안심하고 목숨을 맡길 길을 열어달라”고 했다. 사실상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인 것이다. 『淸太宗實錄』 권33, 崇德 2년 1월 丁卯.

31) 崔鳴吉, 『遲川集』 권11, 「丙子封事二」; 『仁祖實錄』 권32, 인조 14년 3월 丁未.

이었다. 김자점은 청군이 침략했다는 최초 보고를 무시하고 그들과의 접전을 회피하여 청군 기마대가 서울을 유린하게끔 방조했고, 김경징은 강화도 방어의 책임을 방기하여 피난했던 사서인(士庶人) 전체가 포로가 되게 만들었다.³²⁾

도원수 김자점은 의주에서 평산에 이르는 청군의 예상 진격로에 위치한 기존의 진(陣)들을 전부 산성으로 옮기는 실책을 저질러, 청군의 철기(鐵騎)가 별다른 저항 없이 서울로 돌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1636년 12월 6일 의주 부근의 용골산(龍骨山)에서 청군의 침입 사실을 알리는 봉화가 올랐음에도 그 사실을 서울로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 조정은 결국 12월 12일 오후야 청의 침입 사실을 인지했고, 인조와 도성 백성들은 강화도로 들어가거나 피난길에 오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상실했다. 조정은 급작스레 남한산성으로 피난하면서 도성의 문들을 전부 폐쇄했는데, 이것이 도성 백성들의 피난을 막는 결과가 되었다.³³⁾ 이 과정에서 피난하지 못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청군의 포로가 되었다.

인조와 조정이 병자호란 이전부터 강화도를 유사시의 피난처로 정비해 놓고서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명백한 과오이자 ‘재앙’이었다. 그것도 ‘인재(人災)’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청은 1631년 조선에 보낸 국서에서, 유사시 조선 조정이 섬으로 들어가려 할 것임을 자신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암시하고, 조선 조정의 입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한 바 있었다.³⁴⁾ 그럼에도 조선은 청은 ‘경고’를 무시한 셈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만든 피로인들을 양산하게 되었던 것이다.

강화도 방어의 책임을 전담했던 김경징과 이민구(李敏求), 홍명일(洪命一) 등의 무책임한 행태 역시 피로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김경징은 왕실 가족과 역대 국왕들의 신주를 강화도로 안전하게 호송하는 책임도 맡았는데, 그의 문제점은 우선 강화도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드러났다. 당시 서울 주변의 거주민들이 대부분 강화도로 피난하려 했던 상황에서 김경징은 그것을 자의적으로 통제했다. 더욱이 당시의 한강 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양화진에서 김포를 거쳐 강화에 이르는 뱃길이 하루에 한 번밖에 열리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다.³⁵⁾ 그런데 김경징은 이렇게 제한적인 배편을 자신의 가족(家屬)들과 친인척, 재물들을 운반하는 데 우선적으로 이용했다. 그 와중에 ‘운송대상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왕세자빈조차 이들 동안이나 김포 쪽 나루에 방치하는 행태를 보였다.³⁶⁾ 그리고 자신과 연줄이 닿는 자들을 강화도로 들여보낸 뒤에는 모든 선박을 강화 쪽 해안에 묶어버렸다. 그 결과 김포 쪽에서 배를 기다리던 피난민들은 대부분 청군에게 살해되거나 포로가 되었다.

또한 강화도에 들어간 김경징이 “청군은 수군이 약하다”는 판단 아래 방어 준비를 거의 방기한 채 연락(宴樂)에 빠져들었던 것은, 강화도가 함락되고 거주민들이 포로로 잡히는 데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김경징이 강화도 검찰사가 되는 데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은 그의 부친인 영의정 김류(金瑬)였거니와, 김류는 애초부터 ‘강화도는 방어를 위한 노력 자체가 필

32) 실제 인조는 호란이 끝난 직후 서로도원수(西路都元帥) 김자점, 제도도원수(諸道都元帥) 심기원(沈器遠), 부원수 윤숙, 강원감사 조정호 등을 “적을 놓아두고 임금을 버린 채 머뭇거린 자들”이라고 하여 추문(推問)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2월 庚辰.

33) 『南漢日記』 一, 丙子 12월 14일. “(李)聖求曰 都城閉門 想士女皆未得出 甚可慮也.”

34) 『清太宗實錄』 권8, 天聰 5年 1월 壬寅.

35) 『南漢日記』 一, 丙子 12월 14일.

36) 羅萬甲, 『丙子錄』, 「記江都事」; 『江都錄』(『稗林』, 1969, 탐구당 영인본 8책 所收).

요 없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혀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던 12월 14일 당일에도 인조에게 강화도 행을 강권했고, 이에 대해 이성구(李聖求)가 '강화도 방어의 곤란함'을 언급하자 "강화도는 방어를 위한 노고가 필요 없다"고 말한 바 있었다.³⁷⁾ 김류의 이 같은 안일한 인식은 김경징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김경징은 청군의 도해(渡海)와 상륙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강화도 방어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거의 취하지 않았다.

청군은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경강(京江) 주변의 선박들을 징발하는 한편 목재들을 끌어 모아 배를 만들었다. 이어 명에서 귀순한 이신(貳臣) 공유덕(孔有德)과 경중명(耿仲明)을 앞세워 강화도에 대한 공략전을 감행하여 성공시켰다. 공유덕과 경중명은 본래 모문룡(毛文龍)의 부하들로서, 산둥 지역의 수군을 지휘하던 인물이었다. 그들은 1633년 등래(登萊)의 수군과 함선, 홍이포(紅夷砲)를 가지고 후금으로 귀순했거니와, 당시 조선은 명의 강요에 밀려 그들을 추격하는 작전에 동참하기도 했다.³⁸⁾ 그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면 청이 이들 한족 출신 수군 지휘관들을 이용할 것임을 쉽게 생각할 있었을 텐데도, 김경징 등은 그를 무시하는 우를 범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군이 상륙하자 저항을 포기한 채 배를 타고 도주해버렸다. 그 결과는 강화도 주민과 피난민 전체가 살육당하거나 포로가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말았다.³⁹⁾

『강도록(江都錄)』을 비롯하여 병자호란 이후 편찬된 실기(實記)들이 '강화도 함락'과 피로인 발생의 책임을 대부분 김경징과 그를 검찰사로 추천한 부친 김류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⁴⁰⁾ 그럼에도 전쟁 이후 '책임자 처벌론'이 대두되었을 때-김경징은 논란 끝에 자살했지만-김자점은 무사했고, 인조의 배려로 영의정 자리까지 승진했다.

3) 주회인 송환을 둘러싼 논란

청(후금)의 포로에 대한 집착은 일찍이 정묘호란 직후부터 양국 사이에 주회인(走回人, 도망자) 쇄환(刷還)을 둘러싼 갈등을 야기했다. 후금 측은 1627년 5월경부터 정묘호란의 피로인 가운데 조선으로 도주한 자들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만약 조선이 그들을 숨겨주고 송환하지 않을 경우 양국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협박했다.⁴¹⁾ 후금은 특히 자신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주회인을 돌려받는 데 골몰했다. 한 예로, 1628년 홍타이지는 포로로 잡혔다가 조선으로 탈주한 철장(鐵匠) 김몽수(金夢水) 등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기록에는 조선이 김몽수 등을 돌려보내지 않는 것 때문에 홍타이지가 조선에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다고 하거니와,⁴²⁾ 철장처럼 후금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주회인에 대해서는 그

37) 『南漢日記』 丙子 12월 14일. “聖求曰 小臣甚以江都爲憂 堯曰 江都則無防禦之勞 不足慮也.”

38) 한명기, 「17세기 초·중반 朝淸關係와 貳臣」, 『北方史論叢』 8, 고구려재단, 2005, 267~270쪽.

39) 羅萬甲, 『丙子錄』, 「記江都事」.

40) 『仁祖實錄』의 사신(史臣)은 김경징을 '광동(狂童)'이라 지칭하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그의 검찰사 임명을 막지 못한 김류를 비판했다. 『仁祖實錄』 권35, 인조 15년 9월 丙戌.

41) 『淸太宗實錄』 권3, 天聰 1년 5월 庚午.

42) 『承政院日記』 21책, 인조 6년 5월 26일.

송환 요구가 더 집요하고 끈질겼다.

하지만 정묘호란 직후 조선은 도망자들을 쇠환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1627년 7월 인조는 “도망쳐 온 포로들은 부모와 향토를 못 잊어 온 자들이니 측은해서 쇠환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국서를 후금에 보냈다.⁴³⁾ 인조와 조선 신료들은 주회인에 대해 후금과는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한 예로, 허적(許示商, 1563~1640)은 사로잡은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주는 것은 예로부터 상례(常例)였다고 전제하고, 도망쳐 온 포로들을 다시 송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⁴⁴⁾ 정경세(鄭經世, 1563~1633) 또한 허적과 비슷한 생각을 피력했다. 그는 “교사(狡詐)한 일본조차 국교를 회복한 뒤에는 임진왜란 당시 끌고 갔던 포로들을 1만 가까이 송환했다”면서, 서로 화친을 맹세한 나라 사이에는 사로잡은 포로들을 돌려주는 것이 성의와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세는 무고한 침략을 자행했던 후금이 도망자들을 쇠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거 어떤 오랑캐에도 하지 않았던 몰염치한 행위라고 극론했다.⁴⁵⁾

양국의 주회인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가운데, 후금은 조선이 피로인들을 정 데려가고 싶으면 일정한 장소에서 원주인과 약정하여 몸값을 치르고 송환하라고 요구했다.⁴⁶⁾ 포로에 대한 속환(贖還)이 시작된 것이다. 후금의 입장에서는 피로인의 도망 때문에 후금 내부에서 이미 구축된 주노(主奴) 관계가 동요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병자호란 이후에는 주회인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더 빈번해졌다. 전체적인 피로인의 수가 정묘호란 당시보다 많아졌고, 주회인의 수도 훨씬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청군의 철수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1637년 2월 하순경부터 이미 청에서 도망쳐 오는 주회인들을 구출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⁴⁷⁾

병자호란 이후 주회인 문제에 대처하는 청의 태도는 과거보다 훨씬 강경했다. 청은 심관(瀋館)의 소현세자(昭顯世子)를 통해, 혹은 직접 관원을 조선에 파견하여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주회인을 돌려보내라고 종용했다. 심지어 1639년(인조 17)에는 “주회인 송환 등에 성의를 다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인조를 심양으로 입조(入朝)시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⁴⁸⁾ 1644년(인조 22)에는 더 나아가 ‘왕위 교체론’을 들먹이기도 했다. 인조를 ‘길들여’ 주회인 송환 등에 성의를 다하도록 강제하려는 목적이었다.⁴⁹⁾ 이 같은 ‘근본적인’ 압박 앞에서 정묘호란 무렵처럼 “백성의 부모된 자로서 차마 송환할 수 없다”는 식의 동정론에 입각한 호소는 통할 수 없었다.

조선 조정은 청의 압력에 밀려 도망친 주회인을 대신해 그의 가족을 붙잡아 보내는가 하면,⁵⁰⁾ 주회인들을 체포하는 데 골몰했다. 그 과정에서 체포된 주회인들은, 압송하라는 청의 지시가 바로 내려오지 않을 경우 조선의 감옥에 기약 없이 구금되기도 했다. 1645년(인조 23) 7월, 평안감사 김세렴(金世濂)은 평안도에서 붙잡힌 주회인들이 청의 조치를 기다리며 몇 년 동안이나 감금되어 있다는 것, 그들 가운데는 기한(飢寒) 때문에 죽는 이도 있음을 지적하며 조정에 대해 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비변사는, 수감된 지 이미

43) 『清太宗實錄』 권3, 天聰 1년 7월 甲戌.

44) 허적, 『水色集』 권8, 「走回人刷還議」.

45) 鄭經世, 『愚伏集』 권5, 「論答虜書劄」.

46) 『清太宗實錄』 권3, 天聰 1년 7월 癸未.

47)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2월 丁酉.

48) 『承政院日記』 70책, 인조 17년 7월 2일.

49) 한명기, 「丙子胡亂 패전의 정치적 과장」, 『東方學志』 119, 2003.

50) 『瀋陽狀啓』 辛巳 6월 26일.

오래된 주회인들을 일단 가족들에게 맡겼다가 청의 지시가 내려오면 다시 처결하자는 교육 정책을 제시했다.⁵¹⁾ 요컨대 병자호란 이후 수많은 주회인들이 청의 쇠퇴 압박과 조선 조정의 어정쩡한 태도 사이에서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3. 피로인들의 고통

그렇다면 당시 피로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 병자호란 직후 예조좌랑 허박(許博)은 “피로의 고통은 죽는 것보다 심하고, 그것이 화기(和氣)를 손상하는 것 또한 죽음보다 심하다”고 규정한 바 있다.⁵²⁾

피로인들의 고통은 일단 청군에게 붙잡히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최초 청군에게 붙잡힐 때 도주에 실패하여 상해를 입거나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다음으로 체포된 이후 청으로 압송되기 전까지, 청군 진영을 비롯한 특정 장소에 억류되면서 겪어야 했던 고통이 있다. 나만잡은 『병자록』에서 “적진 가운데 조선인 포로가 절반인데, 그들이 무엇인가를 호소하려 하면 청군이 철편(鐵鞭)으로 때려 참혹한 정상을 차마 볼 수 없었다”, “서강(西江)을 오가면서 적진을 보니 아국인 가운데 어떤 이는 벌써 살해당했고, 어떤 이는 화살을 맞았는데 목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어떤 이는 전하를 쫓아오다 적에게 잡혀가고, 어떤 이는 전하를 향해 합장하고 비는 등 모두 비참한 것뿐이었다”고 기록했다.⁵³⁾ 붙잡혀 수용된 상황에서 외부와의 접촉이나 탈출을 시도할 경우 곧바로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것이다.

비록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집단적으로 수용된 이후 열악한 환경 때문에 많은 피로인들이 병들거나 몸이 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로인들이 청군에게 붙잡힌 시기는 대략 1636년 12월부터 1월 사이의 겨울이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변변한 잠자리가 있을 턱이 없었으므로, 피로인들은 동사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남한산성을 지키던 병사들 가운데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은 자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사례를 고려하면⁵⁴⁾ 피로인들이 추위에 희생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1637년 2월 8일, 인조는 인질이 되어 심양으로 끌려가는 장남 소현세자를 배웅하기 위해 서울 북쪽으로 거동했다. 주목되는 것은 인조가 인질 호송 책임자인 청의 구왕(九王) 도르곤에게 소현세자를 온돌방에서 재워달라고 부탁했던 점이다. 당시 소현세자는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청군 진영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노숙으로 말미암아 이미 병을 얻은 상태였다.⁵⁵⁾ 왕세자 신분이라 상대적으로 우대 받았던 그가 이러할진대 일반 피로인들이 겪어야 했을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청군에 의해 심양으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도 빼놓을 수 없다. 홍타이지는 자신이 먼저 철수 길에 오르면서 도르곤 등에게 소현세자 일행과 조선 피로인들을 엄중히 감시하여 끌고 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피로인들이 행군하는 도중 연변 고을의 주민들과 접촉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라고 강조했다.⁵⁶⁾ 1637년 2월 8일, 청의 도르곤 일행은 피

51) 『仁祖實錄』 권46, 인조 23년 7월 壬申.

52) 『承政院日記』 60책, 인조 15년 9월 16일.

53) 羅萬甲, 『丙子錄』, 「急報以後日錄」 丁丑 2월 2일, 2월 6일.

54)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1월 甲寅.

55)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2월 戊寅.

로인들을 세 줄로 세운 뒤 수백 명 단위로 심양을 향해 출발시켰다. 다수의 피로인들이 대오를 유지하면서 엄중한 감시와 채근 속에 심양까지 수천 리를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런 일이었다. 청과의 척화(斥和)를 추기한 혐의로 심양으로 연행되었던 오달제(吳達濟)는 행군 과정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자신이 연행될 당시 피로인들의 수가 많아 행군이 지체되었고 그 때문에 하루에 10여 리 정도 밖에는 이동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⁵⁷⁾ 실제 피로인 행렬이 임진강에 이르렀을 때, 배를 이용하여 도강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행군이 지체되고 도망하는 자들도 나타나자, 청군은 도망자뿐 아니라 일반 피로인들까지 살육하여 보복했다. 또 압록강을 건넌 뒤에도 많은 수의 피로인들이 청군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이 이어졌다.⁵⁸⁾

오달제는 또한 심양까지 오는 도중 60여 일 동안이나 옷을 벗지 못한 채 잠을 자야 했으므로 온몸에 이가 들끓게 되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감시하는 청군들이 피로인과 행군하는 연로 주변의 조선인들이 접촉하는 것을 워낙 엄중하게 차단하여, 편지조차 맡길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⁵⁹⁾

피로인들 가운데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특히 처참했다. 여성들은 사로잡힌 뒤 능욕을 당하거나 그것에 저항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⁶⁰⁾ 병자호란 당시에도 청군은 여성들, 그 가운데서도 젊고 자색이 고운 여인들을 사로잡는 데 골몰했다. 이 때문에 청군의 능욕을 피하기 위해 자결하는 여인들이 속출했다. 실제로 강화도가 함락된 뒤 청군의 체포와 능욕을 피하기 위해 사서를 막론하고 수많은 여인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했다. 그와 관련하여 ‘여인들의 머릿수건이 바다 물에 떠 있는 것이 마치 연못에 떠 있는 낙엽이 바람을 따라 떠다니는 것 같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⁶¹⁾ 사로잡힌 여인들 중에는 유부녀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청군은 자신이 잡은 여인들을 끌고 가면서 그 아이들을 죽이거나 유기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⁶²⁾

최초 청군에게 붙잡힌 이후 수용 기간을 거쳐 심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성 피로인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1637년 6월, 홍타이지는 조선 원정에 참여했던 청군 지휘관들의 과오를 지적하고 처벌했다. 당시 처벌받은 지휘관들 가운데는 조선에서 사로잡은 여자 피로인들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거나, 다른 장수가 잡은 여자 피로인들을 빼앗아 첩으로 삼은 자들이 있었다.⁶³⁾ 이렇게 최초 자신을 사로잡았던 청군 장수로부터 또 다른 장수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성 피로인들이 어떤 수난을 겪었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당시 피로인 여성들 가운데 많은 수가 청군 장병들의 첩이 되었다. 청군의 첩이 된 조선 여

56) 『清太宗實錄』 권34, 崇德 2년 2월 乙酉.

57) 吳達濟, 『忠烈公遺稿』 簡牘, 「後書」.

58) 趙慶男, 『續雜錄』 丁丑 3월, 4월.

59) 吳達濟, 『忠烈公遺稿』 簡牘, 「上伯氏書」.

60) 정묘호란 무렵에도 후금군에게 능욕을 당하거나 그것을 피하려다 피살되거나 자결했던 여성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당시 해주(海州) 신당(神堂)이란 곳에서 사로잡혔던 정(鄭) 진사 집안의 여인 네 명 가운데 두 명은 후금군을 꾸짖다가 죽임을 당했고, 나머지 두 명은 물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비극을 겪었다. 申達道, 『晩悟集』 권5, 「椴島奉使時間見啓」 丁卯, 3월 28일.

61) 羅萬甲, 『丙子錄』, 「記江都事」; 李肯翊, 『燃藜室記述』 권26, 「仁祖朝故事本末」.

62) 趙慶男, 『續雜錄』 丁丑 2월 13일.

63) 『清太宗實錄』 권34, 崇德 2년 6월 甲子.

성들은 심양에 도착한 뒤 청군의 본처들로부터 투기(妬忌)의 대상이 되면서 다시 한 번 참혹한 고통을 겪었다. 일부 청군의 본처들은 조선 여인들에게 끓는 물을 뿌리거나, 혹심한 고문을 가하여 문제가 되었다. 오죽했으면 1637년 4월, 홍타이지는 도르곤 등 신료들을 불러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다. 조선에서 데려온 여성들에게 계속 그런 짓을 자행하는 여인들이 있을 경우, 남편이 죽었을 때 순사(殉死)시키겠다고 투기를 근절시키라고 강조했던 것이다.⁶⁴⁾

피로인들 가운데는 이후 도망이나 속환을 통해 조선으로 돌아오는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으로의 귀환 또한 고통의 연속이었다. 우선 심양에서 조선까지 이동하는 동안 굶어죽을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다. 이동하는 도중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637년 윤4월, 속환인들이 중로에서 아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원보(通遠堡) 서편으로 미곡을 운송하여 중로에서 속환인들에게 공급하자는 대책이 제시된 바 있다.⁶⁵⁾ 굶주리게 될 위험성은 조선 땅에 들어선 이후에도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회인이나 속환인들이 통과하는 군현과 군현 사이가 너무 먼 경우, 특정 군현이 심하게 불타는 등 피해를 입어 식사와 숙박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그들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따져 적당한 곳에 진제장(賑濟場)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⁶⁶⁾

도망쳐 오던 여성 피로인들은 중간에서 납치될 위험까지 무릅써야 했다. 1637년 2월, 조정은 부녀자들이 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이 지나는 연로와 나루터 등지에 장관을 파견하여 호송토록 하고, 사족 부녀들을 잡아가는 자들을 체포하여 효시(梟示)하라는 명을 내렸다.⁶⁷⁾ 요컨대 최초 청군에게 붙잡힐 때부터 귀환할 때까지 피로인들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4. 정부의 ‘피로인 문제’ 대책과 귀결

병자호란 이후 조선 조정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피로인들을 송환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청에게 항복한 직후인 1637년 2월, 인조는 청 태종에게 세 차례나 근신을 보내 강화도에서 사로잡힌 사람들을 쇠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 태종은 요청을 받아들여 남녀 1,600여 명을 돌려보냈다.⁶⁸⁾ 당시는 조선으로부터 항복을 받은 직후여서 청 태종이 별다른 이의 없이 피로인들을 돌려보냈지만, 그 인원은 수십만에 달하는 전체 피로인의 숫자를 고려하면 너무도 적은 수였다. 결국 피로인을 송환해 오는 것은 청에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속환으로 구체화되었다.

청군에게 사로잡혀 끌려간 것이 확실한 피로인과 그 가족들은 물론, 전란 중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속환은 거의 유일하게 남은 실낱같은 ‘희망의 근거’였다. 그 단적인 예로 대사간 전식(全湜, 1563~1642)과 전적(典籍) 신역우(申易于)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전쟁이 끝난 뒤 아들의 생사를 알지 못했던 전식은 애타는 마음에 ‘허장(虛葬)’이라도 치르

64) 『淸太宗實錄』 권34, 崇德 2년 4월 辛卯.

65)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윤4월 庚子.

66) 『承政院日記』 57책, 인조 15년 4월 7일.

67)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3월 乙巳.

68)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2월 丁丑.

려다 포로로 잡혔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 그는 당시 사은사(謝恩使)로 심양에 들어갈 예정이던 좌의정 이성구(李聖求)에게 ‘아들을 찾아보고 속환해 올 것’을 부탁했다.⁶⁹⁾ 또 일곱 살 된 아들이 심양에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고—속환가를 마련할 수 없었는지—의주에서 만주 쪽을 바라보며 밤낮으로 근심하던 신역우의 모습은 ‘피로인 문제’가 지니는 비극성을 여실히 보여준다.⁷⁰⁾ 특히 전식의 편지에는 자식이 피로인으로서나마 생존해 있기를 바라는 비원(悲願)과 희망이 절절하게 드러나 있다.

심양에 억류된 혈육의 속환을 시도할 수 있고, 또 실제 속환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식과 같은 고위관료나 일부 부유층뿐이었다. 정부의 피로인 송환 노력은 주로 종실(宗室)이나 신료들의 가족과 친인척, 남한산성 수성군(守城軍)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했다. 더욱이 속환 과정에서 일부 부유한 관리들이 자신의 가족과 인척들을 빨리 송환하는 데 급급하여 애초 정해진 속환가(贖還價)에 몇 배의 웃돈을 얹어주는 행태를 보이면서, 속환가가 폭등하는 부작용까지 생겼다.⁷¹⁾ 이 때문에 최명길 등은 속환가의 폭등을 막기 위해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청인들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⁷²⁾

결국 폭등한 속환가를 마련할 수 없는 하층민들은 속환을 포기해야 했다. 속환을 둘러싼 담당 관원들의 부정행위도 심각했다. 당시 조정은 심양에 억류된 피로인들의 명단을 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른바 『피로인성책(被擄人成冊)』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혈육의 생사를 알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이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당시 비변사에 보관되어 있던 ‘성책’을 열람하려면 관련 당상(堂上)이나 색리(色吏)들에게 뇌물을 제공해야만 했다고 한다.⁷³⁾ 바로 이런 상황들이 피로인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원인이 되었다.

당시 피로인 속환과 관련하여 가장 주도면밀하고 포괄적인 대책을 제시한 사람은 예조좌랑 허박이었다. 그는 속환을 전담하는 기구와 관원으로 속환도감(贖還都監)과 속환사(贖還使)를 각각 두고, 나라의 가용 재원을 모두 동원하여 피로인 속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를 위해 왕실과 조정이 근검절용에 솔선하고, 은광을 개발하고, 공직자와 부자들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사정을 설명하여 속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속환 과정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고, 속환가를 엄격히 제한하여 속환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만이 백성들의 원망이 국가로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⁷⁴⁾ 하지만 허박이 제시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수용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흐르게 되자 속환 문제는 점차 ‘정부 차원의 대책’이 아닌 ‘개인의 문제’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인다. 더욱이 청이 속환 기한을 호란 이후 10년으로 잡고, 끌려간 조선인들을 ‘자국민’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⁷⁵⁾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하층민들의 속환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청이 오히려 조선에 대해 속환을 종용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한 예로 1641년(인조 19) 6월, 청나라 장수 용골대(龍骨

69) 全湜, 『沙西集』 권4, 「寄克恬」.

70) 金宗一, 『魯庵集』 권3, 「瀋陽日乘」.

71) 박용옥, 「丙子亂被擄人贖還考」, 『史叢』 9, 1964, 53~59쪽; 森岡康, 「許博の疏文と贖還批判 下」, 『朝鮮學報』 39-40, 1966, 238~245쪽.

72)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4월 庚寅.

73) 『承政院日記』 60책, 인조 15년 9월 16일.

74) 『承政院日記』 60책, 인조 15년 9월 16일. 허박(許博)의 속환 방책에 대해서는 森岡康, 「許博の疏文と贖還批判 上·下」, 『朝鮮學報』 37-38, 39-40, 1966에서 상세히 분석된 바 있다.

75) 『瀋陽狀啓』 丁丑 8월 19일.

대)는 심관의 조선 관리들에게 자신의 곤궁한 경제적 사정을 이야기한 뒤, 자신이 데리고 있는 열 살 아동을 속환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⁷⁶⁾ 피로인들에 대한 조선 조정의 관심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인들이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속환을 종용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빚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5. 안추원과 안단의 비극

인조대 이후에도 ‘도망자 문제’에 관한 한 청의 태도는 몹시 강경했다. 심지어 효종이나 현종 연간까지도 주회인을 돌려보내라는 그들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⁷⁷⁾ 하지만 조선 측에서는 효종 이후 정부 차원의 속환 시도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때문에 자신의 혈육을 찾기 위해 개인적으로 청 내지로 잠입했던 사람들이 청 관헌에 체포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예로, 1665년(현종 6) 고양(高揚)에 사는 백성 최순일(崔順一)이 동생을 찾는다면 압록강을 건넌다가 책문(柵門)에서 청 관헌에게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⁷⁸⁾

그렇다면 결국 속환되지 못한 피로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청에서의 생활에 점차 적응해가면서도 고향과 가족들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 때문에 슬픔에 젖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1638년 1월 청이 소현세자 일행에게 베푼 연회에서 조선에서 끌려온 기녀(妓女)와 우인(優人)들이 공연을 벌였는데, 그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었다고 한다.⁷⁹⁾ 또 피로인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귀향의 열망을 끝내 억누르지 못하고 늦게나마 탈출을 시도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로 현종대에 도망쳐 온 안추원(安秋元)과 숙종대에 도망쳐 온 안단(安端)의 사례가 주목된다. 먼저 안추원의 행적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⁸⁰⁾

개성 부근에 살았던 안추원은 호란 발생 직전인 1636년 7월 일가족과 함께 강화도로 피난했다. 하지만 이듬해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포로가 되고 말았다. 그는 심양으로 끌려간 뒤 다시 한족 출신 대장장이에게 팔리는 신세가 되었다. 1644년 청이 입관(入關)에 성공하자, 안추원은 청조의 이주령에 따라 북경으로 흘러들어갔다. 이윽고 1662년(현종 3) 안추원은 조선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산해관을 통과하고 만주를 가로질러야 하는 대모험이었다. 하지만 그는 산해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체포되고 말았다. 북경으로 송환되어 형벌을 받았던 그는 결국 2년 뒤 다시 탈출을 시도하여 성공했다.

조선 조정은 28년 만에 탈출에 성공한 안추원을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그를 고향인 개성으로 보냈다. 하지만 개성에는 이미 안추원의 혈육들이 아무도 없었다. 전쟁은 그의 가족들을 풍비박산내고 말았던 것이다. 더욱이 조정은 ‘청의 인지’를 우려하여 쉬쉬했을 뿐, 그에게 생계 대책 등을 마련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혈혈단신의 처지에 생계마저 막막해진 안추원은 결국 북경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두 차례나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었지만, 그렇게 돌아온 고향은 그에게 또 다른 이역(異域)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그는 압

76) 『瀋陽狀啓』 辛巳 6월 12일.

77) 한 예로 1669년(현종 10) 5월에도 비변사는 도망해온 조선 사람 김대선(金大善)을 청나라로 압송한 바 있다. 『顯宗實錄』 현종 10년 5월 己酉.

78) 『顯宗實錄』 권11, 현종 6년 12월 戊辰.

79) 成海應, 『研經齋全集 外集』 권60, 「瀋陽日記」.

80) 『顯宗實錄』 권9, 현종 5년 8월 辛未; 권11, 현종 7년 1월 丙申.

록강을 건너자마자 책문(柵門)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안단의 행적 또한 처절하다. 그는 강화천총(江華千攄) 안몽열(安夢說)의 아들로 역시 병자호란 당시 포로가 되었다. 부친의 직책으로 보아 그 또한 강화도에서 붙잡혔을 개연성이 높다. 심양으로 끌려가 갑군(甲軍)의 종이 되었던 그는 이후 북경으로 들어가 사역되었다. 안단은 1674년(숙종 즉위년) 자신의 주인이 행방불명되자 조선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포로로 붙잡혀 끌려간 지 무려 37년만이었다. 안단은 산해관을 통과하여 봉황성(鳳凰城)을 거쳐 압록강의 중강(中江)까지 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강을 건너게 해달라는 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의주부윤은 그를 결박하여 봉황성으로 압송했다. 마침 청 사신들이 조선으로 오고 있던 상황에서 청의 혈문을 의식한 조처였던 것 같다. 입국을 거부당하고 봉황성으로 끌려가던 안단은 “고국 땅을 그리는 정이 늙을수록 더욱 간절한데 나를 죽을 곳으로 빠뜨린다”며 울부짖었다고 한다.⁸¹⁾

안추원과 안단의 처절한 사례는 병자호란 시기 ‘피로인 문제’가 가진 다양한 측면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안추원은 28년, 안단은 37년 만에 탈출을 결행했다. ‘청군은 수전(水戰)에 약하므로 강화도로 피난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두 사람의 기대는 김경징을 비롯한 강화도 방어 책임자들의 직무유기 때문에 처음부터 산산이 깨졌다. 청으로 끌려간 뒤에는 자신들을 속환해줄 혈육이 없었던 탓에 탈출을 시도할 때까지 무려 26년, 37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다. 그 긴 세월 동안에도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그들의 열망은 꺾이지 않았다. 하지만 안단은 입국 자체를 거부당했고, 안추원은 귀향했지만 생계 대책조차 막막한 또 다른 ‘현실’에 막혀⁸²⁾ 다시 좌절하고 말았다. 요컨대 안추원과 안단, 두 사람의 행적은 병자호란 시기 수많은 민간인들이 겪어야 했던 포로 체험의 비극적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하겠다.

맺음말

병자호란이 조선 사람들에게 남긴 상처와 고통은 참혹했다. 청군의 침략을 맞아 변변한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인조와 조정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농성하게 되면서, 서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청군의 ‘칼날’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염이 불타고 시체가 즐비한’ 참상과 함께 수십만이 포로가 되어 청으로 끌려가는 참극이 빚어졌다.

수십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국가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그것은 혈육의 이산으로 말미암은 고통, 도망자 처리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인조의 권위와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었다. 더욱이 청은 ‘도망자 송환’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인조를 해야시킬 수도 있다고 위협했거니와, 인조는 그 때문에 청의 요구에 순응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오랑캐’의 침략을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또 변변하게 저항하지도 못함으로써 권위가 떨어져버린 그의 왕권을 더욱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81) 『肅宗實錄』 권3, 숙종 1년 4월 甲午.

82) 실제 임진왜란 당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쇄환(刷還)되었던 사람들도 막상 조선에 귀환했을 때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다. 姜在彦, 『朝鮮通信使がみた日本』, 東京: 明石書店, 2002, 102~106쪽의 「ずさんな刷還人對策」 참조.

병자호란 당시 수십만의 포로가 발생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청의 침략과 그들의 과도한 ‘포로 욕심’ 때문이었다. 포로를 ‘피를 흘려 얻어낸 성과’로 인식했던 청은, 명이나 조선과의 전쟁을 통해 획득한 포로를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여겼다. 그들이 주회인들을 송환하라고 강력히 압박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병자호란 당시 엄청난 수의 포로가 생겨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조선 측에도 있었다. 1636년 청과의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청의 침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음에도 그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 청군의 침략이 시작되었을 때 도원수 김자점을 비롯한 전방의 지휘관들이 도주하거나 접전을 회피하여 청군의 신속한 남하를 방조했던 것, 검찰사 김정정 등이 강화도로 들어갈 때 배편을 자의적으로 통제하여 서울 주변 주민들의 입도(入島)를 제한했던 것, 막상 강화도로 들어간 뒤에는 청 수군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대책을 거의 마련하지 않았던 것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포로 발생을 야기한 근본적인 책임은 물론 청의 침략에 있지만, 이미 예측할 수 있었던 청군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하고 유사시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 등은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포로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참혹했다. 최초 청군에 붙잡힐 때부터 청군 진영에 수용될 때, 심양으로 압송될 때, 심양에 도착한 이후, 나아가 도망이나 속환을 통해 돌아올 때까지 그들 주변에는 늘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맴돌고 있었다.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청과의 교섭을 통해 포로들을 속환하기로 했지만 그것 또한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다. 우선 높은 속환가를 마련할 수 없었던 하층민들은 속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고관이나 부유한 자들의 사정(私情) 때문에 속환가가 오르고, 속환 대상자들의 명단을 적은 성책을 열람하는 과정에 관인들의 부정이 개입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나아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탈출해 왔던 사람들, 또 정당한 속환 절차를 마치고 돌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 또한 미흡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속환 문제는 점차 ‘정부 차원의 대책’이 아닌 ‘개인의 문제’로 전환되어버렸다.

포로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거의 사라질 무렵, 안추원과 안단 같은 사람들이 탈출해 왔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탈출한 그들은 입국하지 못하거나 다시 청으로 귀환을 시도하는 비극을 맞았다. 병자호란을 통해 수많은 ‘안추원’과 ‘안단’이 생겨났거니와 이들의 비극은 새로운 관점에서 병자호란을 다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주제어: 병자호란, 포로, 피로인, 주회인, 속환, 정묘호란.

투고일: 2008년 10월 28일

심사완료일: 2008년 11월 3일

게재확정일: 2008년 11월 6일

한명기

현재 명지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선시대 정치사, 대외관계사를 전공했으며 최근에는 병자호란과 관련된 한중일 관계사, 정치사, 사상사에 관심이 많다. 대표논문으로는 『임진

왜란과 한중관계』, 『광해군』, 「19세기 전반 반봉건 항쟁의 성격과 그 유형」, 「17세기 초·중반 朝淸關係와 貳臣」, 「再造之恩과 조선후기 정치사」 등이 있다.